

윈도용 워드프로세서의 역할과 「훈민정음」의 발전방향

권 강 현*

1. 개 요

<윈도(windows)시대의 도래>

컴퓨터의 사용환경이 문자위주(CUI)에서 그래픽(GUI)또는 멀티미디어(MUI)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애플이 먼저 시작했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환경을 IBM호환기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윈도우(Windows)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의 무수한 장점에 매료되기 시작하였다. 운영체제(OS)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도스(MS-DOS)위에서 수행되는 개념으로 설계된 윈도3.1을 넘어 이제는 완전한 운용체제인 윈도95가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윈도는 쉽고 편리하나 속도가 늦고 고급기종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국내에서 윈도3.0이 소개된 것은 1992년인데 世人的 주목을 끌기 시작한 윈도3.1이 1993년 초에 발표되고 하반기부터는 하드웨어에 윈도 3.1을 사전에 장착하여(Preinstall)출하하는 메

이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삼성전자의 그린 컴퓨터 - II(SPC7500P) 부터는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바로 윈도가 가동되고 윈도 응용프로그램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되게 하였으며 1995년 윈도95의 발표로 도스로 부터의 탈출이 본격화 되었다. 올해(1996년)에 와서는 출하되는 모든 컴퓨터는 윈도95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 윈도3.1이 도입되어 인기를 누리던 94년에도 개인용 컴퓨터의 대부분이 도스 환경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스환경에 익숙된 일부 구매자는 윈도에서 도스로 복귀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94년말 이후에 신규로 구입한 컴퓨터의 주종이 486이상이고 더구나 DX급을 선호하게 되어 94년 이후의 컴퓨터 구매자(사용자)는 윈도 세대라고 할 수 있겠다. 윈도 사용자는 이미 도스 사용자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컴퓨터에서 속도를 지배하는 두 축은 중앙처리장치(CPU)와 메인메모리(Main Memory) 용량이며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도스용 프로그램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이른바 윈도 시대가 완전히 도래 한 것이다.

* 삼성전자 정보미디어 본부, SW사업팀 부장

〈워드프로세서 역할에 대한 이해〉

컴퓨터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는 단순한 응용소프트웨어의 하나로서만 그치지 않는다. 초기의 워드프로세서는 단순히 타이프라이터의 대체기기였다. 타이프라이터의 기록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록해 가는 규격의 기록이며 라인단위의 표현문화이다. 윈도시대의 워드프로세서는 이러한 제한성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입력과 출력을 추구하게 된다. 어떠한 방향이나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모양이나 표현하고 전송할 수 있을 때 사용자의 자유는 그만큼 커지게 된다.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먼저 워드프로세서를 통하여 컴퓨터와 접하게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입력방법의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여 웬만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나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면서 워드프로세서를 배우는 것을 보면 워드프로세서의 한계는 컴퓨터의 한계라 할만큼 중요해져 가고 있다. 훌륭하고 장기적인 워드프로세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컴퓨터 교육이 중요한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자판에만 의존하던 입력이 이제는 마우스나 스캐너, 팩스모뎀을 통한 전소이미지, 나아가서는 음성인식이나 화상인식을 통한 인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바뀌어 컴퓨터와 대화하게 되고 인류생활에 필요한 주요기능(문자/음성/영상/회의/의사결정) 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해 주는 다용화 소프트웨어로 발전해 가고 있다.

2. 외국산 워드프로세서와 혼민정음의 경쟁력

컴퓨터의 본산은 미국. 그 중에서도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팰로알토나 산호세, 산타클라라

부근일 것이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위치한 시애틀도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밸리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동부나 중부의 여러 지방, 곧 미국 전체에서 사용되는 컴퓨터가 세계컴퓨터 사용자의 반을 점유하게 되는 이 마당에 미국산 소프트웨어의 국내진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개인용컴퓨터에 도스나 윈도는 이미 90퍼센트이상의 하드웨어에 장착되어 있고 사무용 표준소프트웨어로 불리는 각종 소프트웨어도 대부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미국의 컴퓨터 기술을 배워 와서 일본화하여 개발하기로 정평이 나 있고 더욱이 일본전기(NEC)의 일본 개인용 컴퓨터 점유율은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였다. 세계를 지배했던 IBM 호환기가 유독 일본만은 침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92년 10월의 미국 Compaq 사의 저가형 컴퓨터의 일본상륙과 도시바의 DynaBook제품의 일본시장 출하는 일본전기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한 사건이다. 이에 일본전기는 지금까지의 『98문화』라고 까지 불리던 일본국내시장의 독점에 위기를 느껴 컴퓨터 전략을 수정하여 윈도를 과감히 채택하고 자체하드웨어에 세계 표준 운영체제(오히려 유저인터페이스라는 측면이 더욱 강해짐)을 따르면서 독특한 부가기능(글꼴, 입력방식, 멀티미디어 등)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범람하는 와중에서도 워드프로세서 역시 한국과 일본은 대단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일본과 같은 동양권 언어문화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는 미국과 같은 영어문화권과의 여러가지 틀린점이 많기 때문에 자국의 워드프로세서들이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비하여 대단한 경쟁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윈도시대

이전의 워드프로세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윈도 시대의 워드프로세서부터는 약간의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윈도용 이전의 워드프로세서는 운용체계가 간단한 시대였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서가 스스로 각종 하드웨어 드라이버나 독특한 유저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었는데 비하여, 윈도용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드라이버나 기본 스타일은 윈도의 스타일가이드에 준하기 때문에 윈도의 기본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특화된 기능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듈이 필요로 한 것이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워드프로세서 개발회사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다. 즉 일본은 이찌타로우(一太郎 : JUST system사)의 JW(JustWindows)버전과의 통일성 문제로 윈도3.1 버전의 발표를 당초계획보다 일년이상 늦게 발표하였고 JUST system을 대체할 만한 윈도용 워드프로세서가 싹트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워드퍼펙트나 MS-워드 같은 제품에게 계속 시장을 잠식 당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다행히 일본 보다는 훨씬전부터 윈도시대를 예견하여 훈민정음과 같은 국산 윈도용 워드프로세서가 성장해 오고있었다. 우리나라의 도스용 워드프로세서를 한때 장악했던 한 워드프로세서 전문회사는 윈도용 제품의 사전개발이 따르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윈도시대는 멀리 있다는 다소 안이한 판단에 도스용 제품의 보급이 급격히 줄고있던 95년3월에야 처음으로 윈도용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윈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시장 적용에 실패하여 94년 국내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던 사용자는 올해(96년)에는 독점하고 있는 도스사용자를 포함 하더라도 누적사용률이 50%대로 줄어들고 말았으며 한정된 기술력과 인력으로 거대공룡을

대항해야 하는 앞으로의 길도 험난하기만 하다. 이제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밀려오는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워드프로세서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세계속에 국제화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려는 노력을 누구에게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 생각할 때가 되었다.

외국의 우수한 워드프로세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은 결코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애국심에만 호소해서도 안되며 정부의 지난친 과보호 또한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온실속의 화초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식물의 새싹은 다른 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조금 성장한 후에는 스스로 힘으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 남지 못한다. 우리는 외국산 워드프로세서의 장점을 잘안다. 또한 이에 못지 않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I18N(InternationalizatioN)에 의해 설계되어 있어도 또 다른 한글화 작업이 필요하며 기능의 부가에도 한계를 갖고있다. 예를 들어 MS-워드나 아미프로에 우수한 기능들이 많지만 한글화를 위한 미국의 최신버전보다는 한두 버전 前의 소프트웨어임을 조금만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한글의 특성을 살리고 영어를 같이 사용함으로 야기되는 제반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예컨대, 세로쓰기에서 한글, 한자는 한문자씩 내려쓰며 영어는 필요에 따라서 두 짜씩 모아 쓰거나 긴 단어의 경우에는 옆으로 누여서 써야 하는데 외국산의 어떤 워드프로세서가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외국산 워드프로세서의 국내진출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좋은 경쟁상대

자이며 試金石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워드프로세서가 우리의 위협존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우물안 개구리 소프트웨어로 남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외국산 워드프로세서를 경쟁하여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것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워드프로세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나 이중에 하나만 결여되어도 쉽게 도태되며 우리는 그 사례를 이미 몇몇 회사에서 보고있다.

첫째는 기능적인 완성도(문서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 기술 개발 및 인간 공학의 연구 -

둘째는 사용자 편리성 제공(문서를 쉽게,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 개발 회사와 사용자간의 교류 및 의견 반영 -

셋째는 보급의 대중화(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것)

- 개발 회사와 유통 회사, 사용자의 공동 노력 필요-

마지막으로 연속성의 제공(업그레이드가 보장되고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 할 것)

- 개발 회사의 의지 및 경제적, 기술적 여건의 보장 -

한때 20여개의 윈도용 워드프로세서가 춘추 전국시대를 이루다가 거짓말처럼 없어진 것을 한 제품씩 위의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이 부족했는지 생각하여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또 앞으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도 예측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3. 향후 계획과 발전방향

훈민정음 1992년 10월 이후 최초버전 발표 이후 현재('96년 8월) 버전4.5(훈민정음95/4.5)에 이르렀는데 삼성전자는 앞서 언급한 워드프로세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응하기 위하여 윈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특화된 기능을 부가시켜 지속적인 주요기능 판올림(Major Enhancement & Upgrade)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재 준비중인 더 많은 기능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선보이게 된다. 또한 어린이와 주부를 위한 {어린이 훈민정음}과 WS사용자를 위한 {유닉스용훈민정음}이 개발되어 현재 베타테스트 중이며 홈소프트웨어 모듈(수첩, 홈백과)들과 연계하여 사용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고전적 의미의 워드프로세서기능을 떠나 컴퓨터 사용자가 한 울타리 안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소위 오피스개념의 기능을 구현해 감은 물론 번역이나 문자인식 및 음성합성 나아가서는 음성입력까지 발전해 갈 것이다. 단순한 철자검색기능을 넘어 스스로 논술적인 확인과 권고를 하여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컴퓨터에게 원하는 요점을 이야기하고 컴퓨터는 잘 훈련된 전문비서처럼 기안을 하고 문서를 만들어 주인의 기호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를 지능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류의 기대사항이며 또한 머지않아 이루어 질 미래형 소프트웨어 이라고 생각하며 그 담당을 훈민정음이 하게 될 것이다.

워드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의 특성 상 대표적인 응용소프트웨어로 분류되나 시스템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와 동일한 사용자수가 있으므로 컴퓨터의 핵심부품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하드웨어위주의 좁은 컴퓨터 시장을 확장시킬 소프트웨어적 컴퓨터 시장으로 접근하는 기본 길목이므로 향후 운영체제와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통합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훈민정음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그 기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0버전 이상이 되면 훈민정음은 단순한 워드프로세서의 성격을 넘어 윈도를 대체시킬 수 있는 준 운영체제로 발전하게 되고 컴퓨터의 보급에 가전제품을 능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러한 기능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훈민정음은 소프트웨어 유통사를 경유한 총판매원 제도와 자체 직관을 병행하며 삼성컴퓨터의 주요 Component 기능과 (단품판매와 버전관리는 별도로 고려함), 조립시장을 위한 하드디스크에 탑재 및 기업사용자를 위한 단체공급 유통방식을 지속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종래의 다단계유통 채널을 뛰어넘는 超流通의 개념으로 발전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한번 훈민정음을 채택한 고객에게 계속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통사에 대한 지원, 중소 소프트웨어개발회사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기술과 자금지원을 병행할 것이다. 고객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하드웨어제품에 대한 신뢰성과도 직결되므로 삼성전자의 모든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보다

앞서 더욱 안정된 제품의 공급으로 이제는 교육강화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훈민정음을 보급시키고 교육을 분담할 모든 희망자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공공기관 및 단체고객에 대한 지역사용권(Site Licence)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